

Africa IP UPDATE

2026년 7월호

COUNTRY UPDATES

진전, 개혁, 협력.

2026년 7월호 ‘아프리카 IP 업데이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프리카 전역의 지식재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동향, 법률 변화 및 지역별 주요 소식을 매월 전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소식을 다룹니다.

- 시에라리온에서 디지털 IP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ARIPO의 활동
- OAPI의 WIPO 회원국 총회에서 국제 협력 강화
- 케냐의 IP 행정과 관련된 획기적인 판결
- 에티오피아의 상표 제도 개혁 노력

또한 리비아, 수단, 알제리, 나이지리아에 대한 최신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이슈와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hould you have any Africa IP quer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marketing@adams.africa so we can direct the query accordingly.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latest IP developments in Africa and how Adams & Adams can best assist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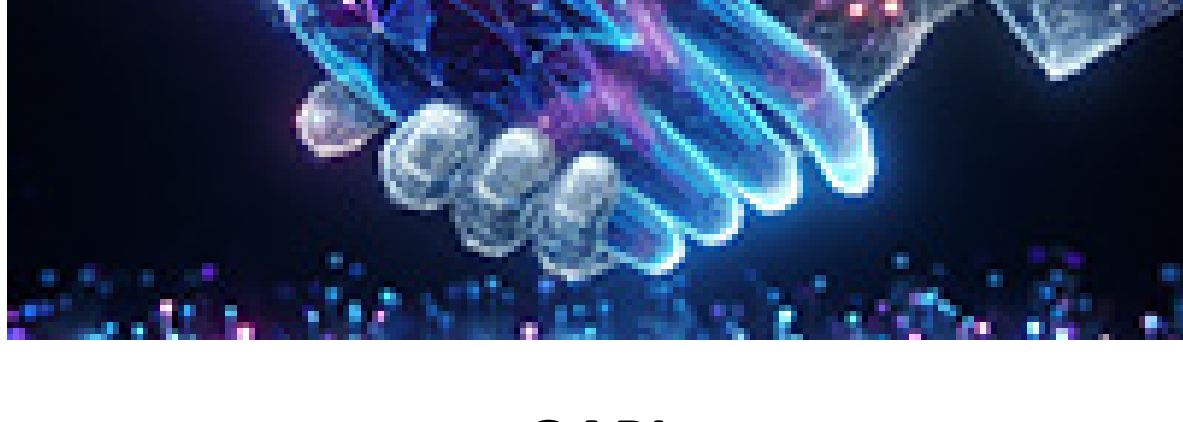
ARIPO

ARIPO, 시에라리온에서 디지털 IP 서비스 발전 추진

시에라리온은 최근 디지털 지식재산(IP)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ARIPO 온라인 서비스 인식 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법무부장관실, 행정 관리·등기총장실,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RIPO)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정부관계자, 법률 전문가, 혁신가 및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화된 IP 행정 시스템의 이점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알파 세세이(Alpha Sesay)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IP)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지식경제에서 시에라리온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식재산(IP)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 디지털 도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ARIPO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자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소개하면서, 2025년에 접수된 신규 출원의 약 80%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ARIPO는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전역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를 통해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OAPI

OAPI, 2026년 WIPO 회원국 총회에서 국제 협력 강화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는 2026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17개 회원국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드니 보우수(Denis Bohoussou) 사무총장이 이끄는 OAPI 대표단은 혁신, 기술 이전, 창의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지식재산(IP) 시스템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OAPI와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이 2026~2027년 업무계획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정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지식재산(IP) 전략 및 이니셔티브 개발 지원을 비롯하여, OAPI 회원국 중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적도기니의 스페인어 능력 향상 지원이 포함된다.

공식 일정과 함께, OAPI 대표단은 각국 지식재산청, 국제기구 및 개발 협력 파트너들과 일련의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기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 지식재산(IP) 환경 속에서 OAPI의 전략적 우선 과제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튀니지

튀니지, ‘Innovative Africa 2026’ 통해 여성 주도 혁신을 선보였다

최근 스팅스(Sfax)에서 열린 ‘Innovative Africa 2026’ 튀니지 행사는 여성 기업가, 혁신가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중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전역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여성 주도 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행사는 스팅스 상공회의소의 지원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본 프로그램은 혁신가들이 잠재적 파트너 및 지원 기관과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기회 및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튀니지의 여성 경영 기업 40개사가 참가했으며,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친환경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행 행사는 스팅스 상공회의소의 지원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본 프로그램은 혁신가들이 잠재적 파트너 및 지원 기관과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기회 및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튀니지의 여성 경영 기업 40개사가 참가했으며,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친환경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케냐

케냐 고등법원, 지식재산 행정 관련 지침을 무효화

케냐 고등법원은 2026년 6월 29일 내린 획기적인 판결에서 상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의 등록, 갱신 및 취소에 케냐 산업재산권청(KIPI)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투자통상산업부의 2025년 9월 30일자 지침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케냐 지식재산(IP) 제도의 완벽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케냐의 모든 지식재산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케냐 법률협회 대 산업부 차관 및 기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지침을 전면 무효화하고 케냐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재확인했다. 법원은 해당 지침이 상표등록관과 KIPI 경영진의 기술적·운영적 권한을, 관리 및 감독 기능에 국한된 권한을 가진 KIPI 이사회의로 불법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은 해당 지침이 수석차관(Principal Secretary)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케냐의 지식재산(IP) 제도에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행정적 장애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IPI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갱신 및 권리 행사에 관한 기존 절차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권리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한편, 케냐 지식재산(IP) 행정 체계의 독립성과 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티오피아

Adams & Adams, 에티오피아 상표법 개정 노력에 기여

Adams & Adams는 최근 에티오피아의 상표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상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 의견과 실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이번 조치는 에티오피아가 자국의 지식재산(IP) 제도를 국제 기준과 변화하는 상업 환경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당국이 추진 중인 광범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 작업은 아디스아바바대학교(AAU)가 주도했으며, AAU는 에티오피아 「상표 등록 및 보호에 관한 포고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에티오피아 지식재산청(EIPA)은 법률 개정안 초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실무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6년 6월 이틀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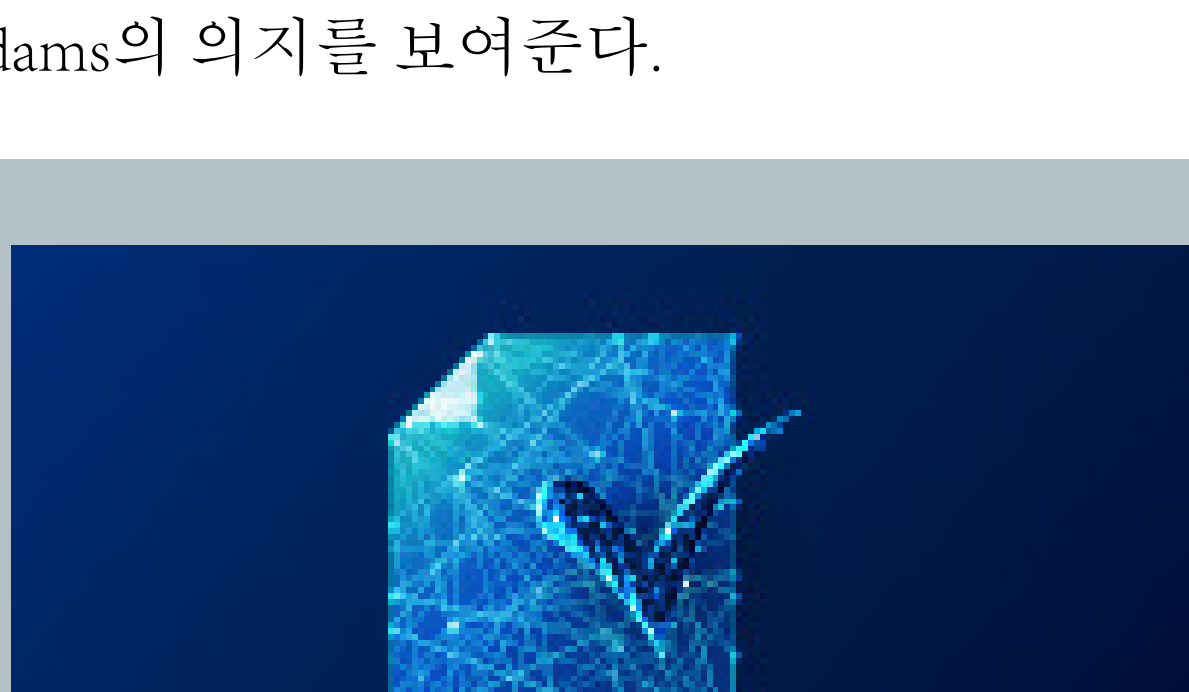
Adams & Adams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오랜 기간 구축해 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Adams & Adams는 개정 포고령 초안 중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는 상표권자와 실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검토 의견은 의견수렴에 제출된 공식 의견서에 반영되었다. 워크숍 이후 접수된 피드백에 따르면, 파트너 스티븐 홀리스(Stephen Hollis)가 작성한 의견을 포함해 Adams & Adams가 제시한 검토 의견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EIPA 사무총장실과 AAU 법안 작성팀 모두에 의해 검토되었다.

Adams & Adams 상표부의 파트너인 스티븐 홀리스(Stephen Hollis)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상표 포고령」 개정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요 법령과 현행 시행규칙, 그리고 수년에 걸쳐 발표된 각종 실무지침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밖에에도 상표 출원의 출원 형식 및 절차적인 요건에 관한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홀리스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의 출원인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 서류 제출 요건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표출원시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고, 국내 출원과 향후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출원에 통일한 출원 요건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출된 의견서에서는 외국 관할권의 출원인에 인정되는 우선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개정안의 관련 조항이 에티오피아가 의도하는 국제적 의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법안 작성팀이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개정 포고령의 최종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동일한 법안 작성팀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포고령의 개정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다.

Adams & Adams는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협력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변화하는 상표 제도 및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참여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지식재산(IP) 제도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법률 개정 과정에서 권리자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Adams & Adams의 의지를 보여준다.



수단

수단, 상표 갱신 요건 엄격 적용

수단 지식재산청 등록총국장은 1969년 상표법 제19조 제3항을 다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라 상표권자는 등록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법정 유예기간 내에 정해진 갱신 연체 수수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규정된 갱신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허용해 온 등록청의 오랜 행정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이다. 분장으로 인한 업무 차질 이후 등록청의 업무가 재개되고 점차 정상화됨에 따라, 등록청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현재 관련 법률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자들은 갱신 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유예기간 중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

알제리, 아프스티유 협약 시행

알제리는 2025년 11월 5일 아프스티유 협약에 공식 가입한 데 이어, 2026년 7월 9일부터 협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협약이 시행되면 알제리에서 사용될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영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신 협약 계약공에서 발급된 아프스티유 증명서 한 장만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경 간 문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문서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스티유가 발급된 문서의 실무상 처리에 관한 알제리 국립산업재산청(INAPI)의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